

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

Issue 14, 2025 Q1

본 보고서(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는 다양한 출처에 공개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음. 보고서 하단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관련 판결 선고

2024.12.19 판결 통해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폐기

-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함.
- '재직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급여의 상당부분을 재직조건을 부가한 정기상여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인사노무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각 기업에서는 이번 판결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인사노무 규정을 빠르게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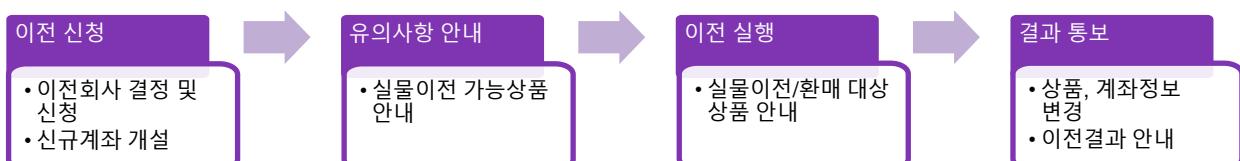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추가 계리평가를 통해 평균임금 변동 효과를 채무 및 비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2024.10.31 보유 상품 해지 없이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운용상품의 해지가 필요하여, 가입자가 관련 손실(중도해지 패널티 및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화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였음.
- 2024.11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며,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어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실물이전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언번들형 퇴직연금 계약 DC, IRP의 경우 계약 내 실물이전 불가능한 상품 있는 경우(적립금 전부 이전만 가능) 운용중인 상품을 수관회사에서 제공(line-up)하고 있지 않은 경우 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	--



가입자는 실물이전 가능 여부, 상품 환매에 따른 영향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안내하는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시장 (2024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분석 자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DB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93.2%, 6.8%로 여전히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그러나 원리금비보장형 투자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23년 말 95.3%, 4.7%).
- 2023년 말 대비 DB자산은 92,669억원 증가하였으며(원리금보장형 42,357억원 증가, 원리금비보장형 50,306억원 증가), 모든 업권에서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증가하였음.

DC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75.9%, 24.1%로 DB제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2023년 말 81.2%, 18.8%).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과거 대비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중이 감소하였음.
- 작년 대비 시장 상황 둔화로 인해 최근 1년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였음 (최근 1년 수익률(사업자별 운용관리자산기준 가중평균): 2023년 말 14.4% → 2024년 말 10.7%)

Figure 01. 퇴직연금 시장 요약

(단위: 10억원, %)

운용 방법	자산 규모				
	DB	DC	IRP	총 합	비중
원리금보장형	199,986	86,440	65,550	351,976	82.4%
원리금비보장형	14,618	27,446	33,145	75,209	17.6%
총 합	214,604	113,886	98,695	427,185	100%
비중	50.2%	26.7%	23.1%	100%	

DB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90,062	3,288	93,350	43.5%
증권	40,390	4,449	44,839	20.9%
생명보험	56,529	6,788	63,317	29.5%
화재보험	13,005	93	13,098	6.1%
총 합	199,986	14,618	214,604	100%
비중	93.2%	6.8%	100%	

DC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60,139	10,182	70,321	61.8%
증권	12,625	14,642	27,267	23.9%
생명보험	11,776	2,418	14,194	12.5%
화재보험	1,900	204	2,104	1.8%
총 합	86,440	27,446	113,886	100%
비중	75.9%	24.1%	100%	

퇴직연금 사업자 – DB (2024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분석 자료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증권) DB 및 DC 각각에 대한 운용관리 자산규모 상위 3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거 수익률 및 자산규모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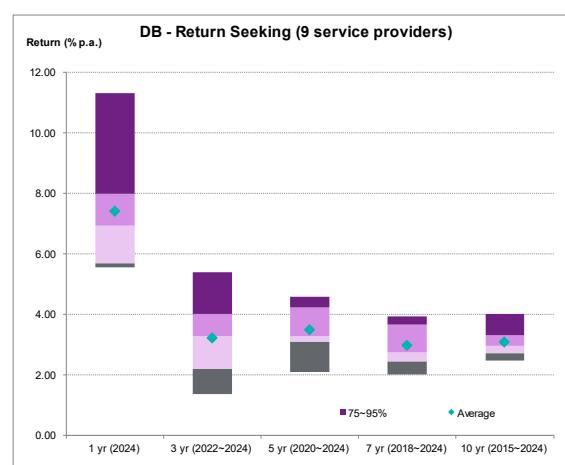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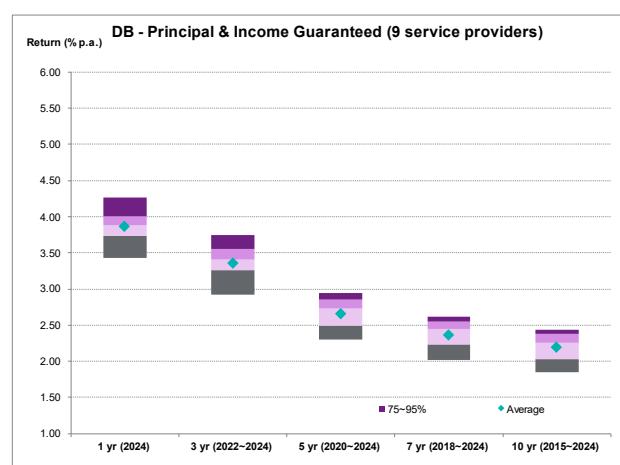
- 2024년 말 대비 7개 사업자의 원리금보장형 자산은 증가하였으며, 하나은행(12,012억원)의 증가폭이 가장 큼. 그러나, 삼성생명의 자산은 20,487억원 감소함에 따라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하였음.
- IBK기업은행의 원리금보장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4년 말 은행업권 상위사업자로 선정되었음
- 교보생명의 1년 수익률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IBK기업은행이 3.3%로 가장 낮은 수익률 보임.
- 기준 금리 인하로 인해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시장 상황 둔화로 인해 9개 사업자의 평균 1년 수익률이 2023년 말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삼성화재는 13.3%로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 2024년 말 기준 9개 사업자의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삼성생명의 자산 증가액은 26,381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음

Figure 02. DB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24)	3년 (‘22-‘24)	5년 (‘20-‘24)	7년 (‘18-‘24)	10년 (‘15-‘24)		1년 (2024)	3년 (‘22-‘24)	5년 (‘20-‘24)	7년 (‘18-‘24)	10년 (‘15-‘24)
하나은행	15,908	3.7	3.3	2.5	2.2	2.0	958	6.1	4.9	4.2	3.6	3.3
신한은행	15,919	3.6	3.3	2.5	2.2	2.0	784	8.0	5.7	4.7	4.0	3.7
IBK기업은행	11,888	3.3	2.9	2.2	1.9	1.8	299	5.7	2.1	3.1	2.5	2.5
현대차증권	14,619	4.1	3.4	2.9	2.6	2.4	624	6.9	2.2	2.7	2.0	2.5
한국투자증권	6,439	4.0	3.8	3.0	2.6	2.5	975	5.6	4.0	4.4	3.7	3.3
미래에셋증권	5,423	3.9	3.6	2.8	2.5	2.4	883	5.6	3.4	3.3	2.8	2.7
삼성생명보험	34,797	3.9	2.9	2.5	2.3	2.2	5,235	7.4	2.6	4.1	3.8	4.2
교보생명보험	8,985	4.4	3.7	2.9	2.6	2.3	550	8.3	0.8	3.3	2.4	2.7
삼성화재해상보험	5,811	3.9	3.5	2.7	2.5	2.3	13	13.3	3.3	1.7	2.1	3.0



퇴직연금 사업자 – DC (2024년 12월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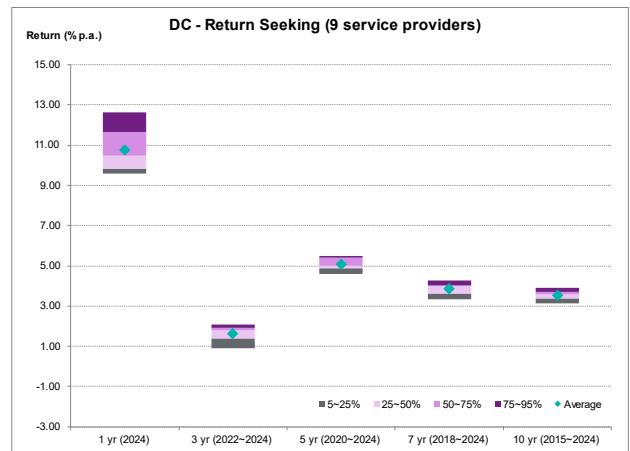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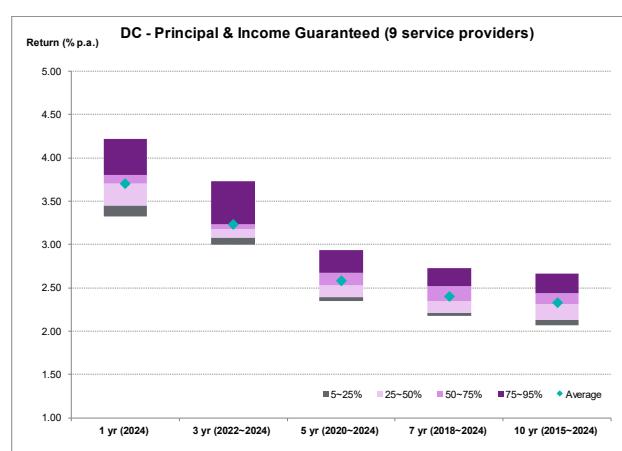
- 9개 사업자 모두 2023년 말 대비 원리금보장형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IBK기업은행의 원리금보장형 자산이 10,812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24년 기준 금리 하락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제공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 7개 사업자의 1년 수익률이 감소하였음.
- 2023년에 이어 한국투자증권의 1년 수익률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은 3.3%로 가장 낮은 1년 수익률을 보임.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4년 시장 둔화로 인해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2023년 말에 비해 감소하였음.
- 증권업권의 경우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자산 금액보다 크거나 유사한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음.
-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2023년 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자산 증가액이 24,784억원으로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모든 업권에서의 원리금비보장형 투자 비중이 증가하였음

Figure 03. DC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24)	3년 (‘22-‘24)	5년 (‘20-‘24)	7년 (‘18-‘24)	10년 (‘15-‘24)		1년 (2024)	3년 (‘22-‘24)	5년 (‘20-‘24)	7년 (‘18-‘24)	10년 (‘15-‘24)
KB국민은행	11,811	3.5	3.1	2.4	2.2	2.1	2,439	10.5	1.9	4.6	3.5	3.3
신한은행	11,289	3.3	3.0	2.4	2.2	2.1	2,320	10.6	1.9	5.0	4.0	3.7
IBK기업은행	12,059	3.4	3.0	2.3	2.2	2.1	1,382	10.0	1.8	5.4	3.9	3.6
미래에셋증권	4,570	3.8	3.3	2.5	2.4	2.3	7,305	12.2	2.1	5.6	4.4	4.0
삼성증권	2,357	3.8	3.2	2.4	2.3	2.2	2,598	11.7	2.1	5.4	4.0	3.8
한국투자증권	1,831	4.5	4.0	3.0	2.8	2.7	1,970	9.8	0.7	4.6	3.3	3.0
삼성생명보험	6,577	3.8	3.1	2.7	2.5	2.4	928	9.7	1.4	4.9	3.6	3.4
교보생명보험	2,469	3.7	3.2	2.7	2.5	2.4	911	9.5	1.2	5.4	4.0	3.5
미래에셋생명보험	1,109	3.6	3.2	2.8	2.6	2.6	414	12.9	1.8	4.9	4.0	3.7



Disclaimer

This document was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substitute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In particular, its contents are not intended by Willis Towers Watson to be construed as the provision of investment, legal,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any kind, or to form the basis of any decision to do or to refrain from doing anything. As such, this document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investment or other financial decisions and no such decisions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its contents without seeking specific advice.

This document is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to Willis Towers Watson at the date of issue, and takes no account of subsequent developments after that date. In addition, past performance is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In producing this document Willis Towers Watson has relied upon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certain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This document may not be reproduced or distributed to any other party, whether in whole or in part, without Willis Towers Watson's prior written permission,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In the absence of its express written permission to the contrary, Willis Towers Watson and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accept no responsibility and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ces howsoever arising from any use of or reliance on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including any opinions expressed herein.

© 2025 WTW. All rights reserved.

About WTW

At WTW (NASDAQ: WTW), we provide data-driven, insight-led solutions in the areas of people, risk and capital. Leveraging the global view and local expertise of our colleagues serving 140 countries and markets, we help you sharpen your strategy, enhance organizational resilience, motivate your workforce and maximize performance. Work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we uncover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success – and provide perspective that moves you. Learn more at wtwco.com.

Contact Details

안정선, FSA, FIAK
Head of Retirement, Korea
+82 2 3430 2561
Chongson.an@wtwco.com